경제통상 핫이슈

美 CBP, 외국계 수입자 통관 요건 강화…韓 기업 현지법인도 영향권

- **美 관세국경보호청(CBP)은 11월 6일 '외국계 수입자(IOR) 요건 강화' 잠정최종규칙을 관보에 게재했으며, 2027년 1월 5일부터 시행 예정**
  - 이번 규칙은 6월 서명된 관세 집행 강화 행정명령(EO 14411)의 후속 조치로, 미국 내 자산이 없는 해외 페이퍼컴퍼니의 관세 회피를 막는 것이 목적
  - 내년 1월 5일부터 모든 수입 신고서(CBP Form 3461·7501)에 미국 수입자 자격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관세 선납 후 반출 등 제재 대상

- **미국에 설립한 법인이라도 '미국인 실소유 지분'이나 '미국 내 부동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국 수입자가 아닌 외국계 수입자로 분류될 가능성**
  - 미국 수입자로 인정받으려면 미국 법인으로 미국에 소재하면서,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인 실소유자가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상당한 미국 내 부동산을 직접 보유해야 함
  - 실소유자는 지분 25% 이상을 보유하거나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개인으로, 최종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한국 모회사가 100% 소유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움
  - CBP는 미국 내 주된 사업장과 실질적 영업활동, 은행 예금·재고·설비 등 미국 내 실물자산, 자본 충분성 등을 종합해 수입자 자격을 검증

- **외국계 수입자로 분류되면 CTPAT(공급망 보안 인증 제도) 인증을 받거나, 인증을 보유한 관세사를 통해서만 통관을 진행할 수 있음**
  - 현재 외국계 수입자 중 CTPAT 인증 기업은 0.4%에 불과하고 인증 대상도 사실상 캐나다 수입자로 제한돼, 대부분은 CTPAT 인증 관세사를 이용해야 함
  - 최근 5년간 미국에서 통관 업무를 한 관세사 약 3,100곳 중 CTPAT 인증 관세사는 21%에 불과하며, CBP는 외국계 수입자의 32%가 관세사를 변경해야 할 것으로 추산
  - 단, 물품의 소유자·구매자인 외국계 수입자는 CTPAT 인증 관세사를 통하더라도 자사 수입자 번호와 관세 보증으로 수입자 명의를 유지할 수 있음

- **미국 현지법인을 세우면 미국 수입자로 인정받는다는 기존 인식과 달리, 한국 모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현지법인도 외국계 수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 검토 필요**
  - 현지법인을 통해 수입하는 기업은 시행 전 지분 구조와 미국 내 자산 요건을 점검하고, 외국계로 분류될 경우 CTPAT 인증 관세사로의 수입 통관 전환을 검토할 필요
  - 특히, 외국 모회사가 지배하는 현지법인 중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판매·유통 법인은 외국계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 관세사와 적격성을 사전 검토 후 필요시 조정

뉴스 큐레이션

경제·통상 뉴스

Anthropic, 공모가 83달러 확정…19일 나스닥 상장

- 18일 Anthropic은 공모가를 당초 예상보다 높은 주당 83달러로 확정, 기업가치는 약 1조 5천억 달러로 평가됐으며, 별도 사모투자 260억 달러를 포함해 총 945억 달러 규모의 자금조달을 추진

※ 원문 링크 : WSJ(11/18), Anthropic Prices IPO at $83 a Share

美 10월 소비자물가 0.4% 상승…예상 웃돌며 12월 금리 인상 무게

- 10일 美 노동부에 따르면 10월 CPI는 전월 대비 0.4% 올라 전망치(0.3%)를 웃돌았으며, 근원 CPI도 3개월 연속 0.3% 상승해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짐

※ 원문 링크 : Reuters(11/10), Hot October inflation report rattles markets

美 10년물 국채금리 5.15%…금리 인상 우려에 급등

- 13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5.15%로 전주 대비 0.29%p 상승했으며, 예상보다 높은 소비자물가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2025년 4월 이후 최대 주간 상승폭 기록

※ 원문 링크 : Reuters(11/13), US Treasuries: Two-year yields headed for biggest weekly jump in two years

美, 중국산 178개 품목 관세 면제 내년 1월까지 연장

- 10일 美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산 178개 품목에 적용되는 무역법 301조 추가 관세 면제를 2027년 1월 9일까지 연장하며, 이는 1월까지 연장된 미·중 관세 휴전 기간에 맞춘 조치

※ 원문 링크 : USTR(11/10), Notice of Product Exclusion Extensions

멕시코, 美 관세협상 속 아시아산 철강의 미국 우회수출 단속 강화

- 11일 멕시코는 중국 등 아시아산 철강의 미국 우회수출 차단을 위해 약 1,100개 제철소 등록을 취소했으며, 한국·중국·인도 등 제3국산 철강·알루미늄 수입을 약 30% 축소했다고 발표

※ 원문 링크 : Reuters(11/11), Mexico says crackdown on Asian steel shipments is paying off as US tariff talks advance

지역·산업 뉴스

삼성SDI, 美 ESS 기업에 16GWh 규모 배터리 공급계약

- 16일 삼성SDI는 텍사스 오스틴 소재 주피터파워와 16GWh 규모 ESS용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며, 2029년부터 3년간 인디애나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공급할 계획

※ 원문 링크 : Samsung SDI(11/16), SAMSUNG SDI Secures 16 GWh LFP Battery Order from Jupiter Power in U.S.

스페이스X, 텍사스·애리조나에 740억 달러 데이터센터 추진

- 1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텍사스·애리조나에 총 74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추진하며, 텍사스에는 가스터빈 35기로 자체 전력을 공급하는 240억 달러 규모 시설을 계획

※ 원문 링크 : Bloomberg(11/12), SpaceX Plans $74 Billion Data Center Buildout in Arizona, Texas

LS일렉트릭, 美 AI 데이터센터 전력설비 1,300억원 추가 수주

- 16일 LS일렉트릭은 美 빅테크의 AI 데이터센터 확장 사업에 약 1,300억원 규모 배전설비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으며, 텍사스 배스트럽 공장 등을 기반으로 북미 사업을 확대할 계획

※ 원문 링크 : Korea Times(11/16), LS Electric wins $94 mil. order to supply power gear for US AI data center

CJ 올리브영, 美 캘리포니아 5개 매장 추가 출점 계획

- 9일 CJ올리브영은 2027년 상반기까지 LA 광역권과 샌디에이고에 5개 매장을 추가 개설해 미국 내 매장을 총 7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여 K-뷰티 현지 유통망이 확대될 전망

※ 원문 링크 : The Korea Herald(11/9), Olive Young to expand US presence with five new California stores

스페이스X 스타십, 우주선 최초 발사대 귀환·포획 성공

- 14일 스페이스X는 텍사스 스타베이스에서 발사한 스타십 우주선을 약 22시간의 궤도 비행 후 발사대의 로봇팔로 포획하는 데 최초 성공했으며, 완전 재사용형 우주선 개발에 중요한 진전 달성

※ 원문 링크 : Reuters(11/14), SpaceX Starship returns to landing pad from orbit, acing test for reusable rockets

보고서 톺아보기

중국 산업설비 수출의 부상과 글로벌 공급구조 변화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중국 산업설비 수출의 부상과 글로벌 공급구조 변화> (2026.11.1) 보고서 요약, 원문보기

-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소비재·중간재를 넘어 산업설비로 확대되며, 중국은 2021년 이후 글로벌 산업설비 수출 1위국으로 부상**
  - 중국의 산업설비 수출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8.2% 늘어 2025년 2,57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독일의 1.8배, 일본의 1.7배 규모
  - 총수출 내 산업설비 비중은 2015년 4.6%에서 2025년 6.8%로 확대됐으며,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12.2%)와 건설·광산기계(10.4%)의 성장세가 가장 가파름

- **수출 확대는 단가 상승보다 물량 증가가 주도했으며, ▲제조업 투자 확대와 ▲설비기업의 경쟁력 향상, ▲내수 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
  - **(제조업 투자 확대)** 아세안 등 신흥국의 생산기반 확충과 美 통상장벽에 대응한 중국 제조기업의 해외 생산거점 구축으로 중국산 설비 수요가 증가
  - **(경쟁력 향상)** 수출 품목이 범용 설비에서 자동화·첨단 장비로 다변화됐으며, 기계류 수출단가가 2023년부터 3년 연속 하락하며 가격경쟁력도 강화
  - **(내수 부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제조업 가동률 하락(2025년 74.6%)으로 내수 수요가 약화되면서 설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촉진

- **중국의 글로벌 산업설비 공급 규모 확대에도, 수요 영향력이 가장 높은 미국 시장에서의 공급 비중 축소가 중국의 전체 공급 영향력 상승을 제약**
  - 중국의 산업설비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5년 17.0%에서 2024년 20.4%로 높아지며 독일(△2.0%p), 일본(△1.0%p)의 점유율을 대체
  - 제조업 성장군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29.6%로 확대됐고 제조업 신흥국 9개국에서는 50%를 넘어선 반면, 미국 등 고소득 제조업 성숙군에서는 14%대에 머묾
  - 물류·이송설비에서 독일을 제치고 1위에 오르는 등 범용성과 신흥 제조국 수요가 높은 설비를 중심으로 기존 강국과의 격차를 축소하거나 공급 영향력 우위로 전환

- **중국은 글로벌 산업설비 공급구조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으므로, 한국은 미국 등 고소득 제조업 성숙시장에서 공급 신뢰성을 바탕으로 기존 공급망 내 입지 확대 필요**
  - 한국의 산업설비 수출은 제조업 성장군 시장에서는 중국의 점유율 상승과 맞물려 입지가 약화되었으나, 선진 제조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공급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존 수준 유지
  - 제조업 성장시장에서는 생산기지 신규·증설 프로젝트 초기부터 참여해 설비 조달 기회를 확보하고, 향후 생산 고도화까지 연계하여 진출 기반을 다져야 함

뉴스라인 스페셜

<전문가 칼럼> 중간선거 여론조사는 왜 텍사스에서 10%p 가까이 빗나갔을까



이단향 교수
Department of Statistics and Data Science,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11월 3일 밤 10시 무렵, AP 통신이 텍사스 연방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 탈라리코 후보가 공화당 팩스턴 후보를 꺾고 당선이 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승패만큼 눈길을 끈 것은 격차였다. 선거 직전 여론조사 평균 사이트 리얼클리어폴링의 집계는 탈라리코 후보가 2.6%p 앞선다고 했는데, 실제 격차는 12%p 안팎으로 벌어졌다. 주지사 선거는 더 극적이다. 평균으로는 공화당 애벗 주지사가 2.3%p 앞섰지만 결과는 민주당 히노호사 후보가 7%p 차로 이겼다. 1위가 아예 뒤바뀐 것이다.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8~9%p씩 빗나간 선거가 여럿 나왔다. 선거가 끝날 때마다 듣는 말이 올해도 나왔다. 여론조사가 또 틀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표본조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번 선거는 그 한마디로 넘기기에는 아까운 사례다.

표본조사의 원리는 흔히 국 맛보기에 비유된다. 미국 여론조사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갤럽이 썼다고 알려진 비유다. 된장찌개 간을 볼 때 냄비째 다 먹어 보는 사람은 없다. 잘 저었다면 한 숟가락으로 충분하다. 1,000명에게 물어 1,900만 명이 넘는 텍사스 등록 유권자의 마음을 가늠할 수 있는 것도 같은 원리다. 물론 한 숟가락에는 늘 '오차범위 ±3%p' 같은 단서가 붙는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조사를 평균 낸 숫자가 10%p 가까이 빗나갔다. 이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 오차범위는 잘 저은 국이라도 숟가락마다 맛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어쩌다 건더기가 더 들어간 숟가락을 뜰 수도 있으니까.

이런 우연은 여러 번 떠서 평균을 내면 대부분 상쇄된다. 그러니 여러 조사의 평균이 10%p 가까이 빗나갔다면 원인은 우연이 아니다. 국을 제대로 젓지 않은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국을 젓지 않은 상태란, 끝까지 대답해 주는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다. 저녁 시간에 걸려 온 모르는 번호를 받아서 10분, 20분씩 걸리는 설문에 끝까지 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미국 퓨리서치센터의 전화조사 응답률은 1997년 36%에서 2018년 6%까지 떨어졌다. 답하는 소수가 답하지 않는 다수와 생각이 다르면, 사람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결과는 한쪽으로 기운다. 소금이 가라앉은 국에서 위쪽만 뜨면 숟가락을 국자로 바꿔도 여전히 싱거운 것과 같다.

이번 선거가 그랬다. 우연이라면 어떤 주는 이쪽으로, 어떤 주는 저쪽으로 틀렸을 것이다. 그런데 주요 경합 지역이 거의 모두 같은 방향, 민주당 득표를 낮게 잡는 쪽으로 빗

나갔다. 전국 하원 득표도 마찬가지다. 여론조사 평균은 9%p 정도의 차이를 내다봤지만, 실제 개표에서는 13%p 안팎까지 벌어졌다. 조사기관들도 이 문제를 안다. 그래서 답이 모자란 쪽에 무게를 더 얹어 결과를 보정한다. 예를 들어 응답자 중 젊은 층이 실제보다 적으면 젊은 층의 답을 더 크게 쳐 주는 식이다. 싱거운 숟가락에 소금을 조금 쳐서 맛을 보는 셈이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응답자의 정치 성향을 실제 유권자와 맞추는 보정이 특히 많이 쓰였다. 2016년, 2020년, 2024년 세 번의 대선에서 여론조사가 연달아 공화당 지지를 낮게 잡았기 때문이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24년에는 전국 조사의 70% 가까이가 이렇게 했다.

문제는 이 보정이 대개 지난 선거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에 나온 유권자가 지난번과 다르면 보정이 오히려 엇나간다. 선거 전부터 워싱턴포스트 등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유권자들이 이번에 덜 나오면, 조사들이 민주당을 낮게 잡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번 맛에 맞춰 소금을 쳤는데, 이번에는 국 자체가 바뀌어 있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막판 표심 변화 같은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어서, 정확한 원인은 조사기관들이 자료를 다시 들여다본 뒤에야 나올 것이다.

정리하면,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 대부분의 선거에서 여론조사 평균은 승자를 맞혔다. 다만 여론조사가 틀리는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다. 지난 세 번의 대선에서는 한쪽으로,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반대쪽으로 틀렸다. 그리고 뉴스에 붙는 오차범위는 여론조사가 틀리는 이유 중 우연에서 오는 몫만 알려 준다. 그러면 여론조사 기사는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조사 하나의 숫자보다는 여러 조사의 흐름을 보는 것이 낫다. 여러 조사가 같은 방향으로 함께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자. 두 후보의 차이가 몇 %p밖에 나지 않는다면 '누가 앞선다'보다 '접전'으로 읽는 편이 안전하다.

한국에서 온 사람에게는 미국의 선거 보도 방식도 낯설다. 한국은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가 끝날 때까지 새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지만, 미국은 그런 제한이 없어 투표 전날까지 숫자가 쏟아진다. 숫자가 많다고 그만큼 정확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 독자에게는 오히려 투표 마감과 동시에 방송사들이 발표하는 출구조사가 더 익숙할 것이다. 출구조사는 방금 투표를 마친 사람에게 묻기 때문에, 누가 투표하러 나올지를 미리 짐작할 필요가 없다. 이번 미국 여론조사의 발목을 잡은 고민 하나를 덜고 시작하는 셈이다.

여론조사는 여전히 민심을 가늠하는 데 쓸모 있는 도구다. 다만 한 숟가락으로 국 전체의 맛을 짐작하는 일인 만큼, 숫자를 정답보다는 어림값으로 읽는 여유가 필요하다. 2028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번 텍사스의 10%p를 한 번쯤 떠올려 보자.

주요 경제지표

● 美 주요 경제지표 캘린더

발표 일자	경제지표	실제	전망	이전
11월 10일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MoM)	0.4%	0.3%	0.6%
	↳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전망을 웃돌았고, 근원 CPI도 3개월 연속 0.3% 상승			
11월 13일	10월 생산자물가지수(PPI, MoM)	0.3%	0.4%	1.4%
	↳ 전월(1.4%)보다 상승폭이 크게 줄었으나, 전년 대비로는 6.5% 올라 2022년 11월 이후 최대			
11월 17일	10월 소매판매(Retail Sales, MoM)	0.2%	0.1%	0.8%
	↳ 전망치는 웃돌았으나 9월(0.8%) 대비 증가폭이 둔화되고 자동차 판매는 1.6% 감소			

출처 : Investing.com

● 주가 & 금리(미국)

- 10월 물가·고용 지표가 예상을 웃돌며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자 증시는 하락하고, 국채금리는 2년물을 중심으로 큰 폭 상승

구분	11.17	11.03	2W(%,bp)	10.20	1M(%,bp)	25.12.31	YTD(%,bp)
S&P500	7,340.5	7,568.9	-3.02	7,712.6	-4.82	6,845.5	+7.23
국채 2년	4.79	4.61	+17.50	4.79	+0.20	3.47	+132.00
국채 10년	5.10	4.95	+15.30	5.12	-1.40	4.15	+95.00

출처 : Investing.com

● 국제유가(최종가 기준, 단위 : $/배럴)

- 호르무즈 해협 통항량 회복과 산유국 증산, 미국 원유 재고 증가로 공급 우려가 완화되며 유가가 큰 폭 하락했으나, 연초 대비로는 여전히 40~50% 높은 수준

구분	11.17	11.03	2W(%)	10.20	1M(%)	25.12.31	YTD(%)
Dubai	88.35	102.16	-13.52	110.70	-20.19	61.59	+43.45
Brent	93.14	103.60	-10.10	108.79	-14.39	60.85	+53.06
WTI	86.01	96.09	-10.49	101.79	-15.50	57.42	+49.79

출처 : 페트로넷

● 주요국 환율

- 美 금리 인상 기대로 달러인덱스가 19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강세를 보인 반면, 원·달러 환율은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 유입으로 소폭 하락하며 상대적 안정세

구분	11.17	11.03	2W(%)	10.20	1M(%)	25.12.31	YTD(%)
USD/KRW	1,335.2	1,344.8	-0.72	1,326.3	+0.67	1,440.6	-7.32
USD/JPY	159.4	158.7	+0.43	158.2	+0.76	156.7	+1.72
USD/CNH	6.667	6.670	-0.04	6.675	-0.11	6.976	-4.43
EUR/USD	1.100	1.119	-1.74	1.124	-2.12	1.175	-6.36
달러인덱스	103.49	101.87	+1.59	101.70	+1.76	98.32	+5.26

출처 : Investing.com, 한국은행

행사 알리미

한국무역협회, 「KITA Global Trade Conference 2026」 개최

-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사상 첫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전망됨에 따라, 미래 무역 경쟁력을 논의하는 국제 컨퍼런스 「KITA Global Trade Conference 2026」을 개최**

  - '1조 달러를 넘어, 한국 산업 통상의 다음 전략'을 대주제로, 무역 1조 달러 시대 이후 우리 산업과 통상의 전략 방향을 모색하고,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무역의 미래 경쟁력 강화 방안을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논의

- **행사 개요**

  - 행 사 명 : KITA Global Trade Conference 2026
  - 일　　시 : 2026년 11월 30일(월) 10:00~16:30 (한국시간)
  - 장　　소 : 코엑스 그랜드볼룸 (서울 삼성동)
  - 홈페이지 : trade-conference2026.kita.net



본 뉴스레터의 구독 신청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구독 취소는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KITA
KITA Dallas Center
5700 Granite Pkwy, Suite 402, Plano, TX 75024
469-409-1004　newsline@kita.net
발행처 : 한국무역협회 댈러스 지부
* 본 뉴스레터의 내용은 한국무역협회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6 KITA Dallas Center. All rights reserved.